

<http://dx.doi.org/10.17703/JCCT.2023.9.3.495>

JCCT 2023-5-57

한국 방송의 팩트 체크 뉴스 공정성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Fact-Checking News Fairness in South Korean Broadcasting

동세호* 안호림**

Dong,seho* Ahn,horim **

요약 객관보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발한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20대 대선과 지방선거전이 치러진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KBS와 MBC SBS, TV조선과 JTBC MBN, YTN의 메인뉴스에 방영된 팩트체크 뉴스 227건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방송사에 따라 팩트체크 검증대상과 서술방식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MBC와 JTBC YTN이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 우호적인 서술이 많았던 반면 TV조선은 국민의 힘 등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서술이 많았다. MBN은 비교적 중립적인 서술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의견상 중립을 지키려는 흔적이 역력했다. SBS와 TV 조선이 팩트체크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나 이슈를 폭넓게 다루면서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기보다는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이슈를 대상으로 맥락 설명에 치우친 것이 특징이다. 팩트체크 서술에서 방송사별로 이념적 편향성이 투영되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주요어 : 팩트체크, 가짜뉴스, 편향성, 공정성, 서술편향

Abstract To compare whether broadcast fact-checking news, which ai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bjective reporting, ensures fairness, we analyzed 227 fact-checked news stories aired on the main news of KBS, MBC SBS, TV Chosun, JTBC MBN, and YTN from January 1, 2022 to May 31, 2022, when the 20th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 campaigns were held. The analysis showed clear differences in fact-checking targets and narratives by broadcasters. In general, MBC, JTBC, and YTN were more likely to favor liberal parties such as the Democratic Party, while TV Chosun had a lot of narratives favoring the conservative camp. SBS and MBN were relatively neutral. KBS seemed to be trying to remain outwardly neutral. SBS and TV Chosun were the most active in fact-checking, but they covered a wide range of issues and were characterized by a bias toward contextualizing issues that viewers were curious about, rather than clarifying the facts. The projection of ideological bias by broadcasters in fact-checking narratives is a challenge that needs to be overcome.

Key words : Fact-checking, Fake news, Bias, Narrative bias

* 정회원,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제1저자)

** 정회원 인천대 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4월 25일 수정완료일: 2023년 5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5월 10일

Received: April 25, 2023 / Revised: May 5, 2023

Accepted: May 10, 2023

I. 문제의 제기

최근 소셜 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방송사를 중심으로 언론사마다 경쟁적으로 팩트체크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화된 방송뉴스의 팩트 체크 코너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의혹제기, 논란이 된 이슈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란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으로 등장했다[1-4].

팩트 체크 뉴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사실여부를 검증을 통해 해석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사실 보도라는 전통적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저널리즘 양식으로서 주목받고 있다[5]. 특히 방송뉴스의 경우 전파력이 강하고 영향력이 큰 만큼 팩트체크 뉴스를 통해 뉴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6]. 반면 팩트체크 뉴스는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검증 대상이 치우치는 등 검증대상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7][8]. 편향(bias)과 오류(error)에 대한 우려 때문에 팩트체크 뉴스의 신뢰성이 의심받기도 한다[9].

객관주의 보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팩트체크 뉴스가 뉴스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평가 대상의 편향성이나 서술 논조의 편향으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8][10]. 언론사가 자사의 논조에 맞는 방향으로 검증할 대상을 골라 팩트체크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팩트체크 뉴스의 편향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사마다 제공하는 팩트체크 뉴스가 팩트체크 대상이나 내용, 검증 결과의 분석에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방송뉴스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팩트 체크의 검증 대상이나 검증 과정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결여한다면 뉴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팩트체크 뉴스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객관보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발한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을 통해 특성을 추출하고 팩트 체크 보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문제

1. 팩트체크 뉴스의 등장과 발전

팩트체크 뉴스가 언론에 등장한 것은 이른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폐해가 커졌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란 일반적으로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용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일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돼 유포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11]. 엄밀하게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를 의미하며 주로 선거 등과 같은 정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정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악용되기도 한다[12]. 허위조작정보는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잘못된 오정보(misinformation)”로서 오보와 구별되며 ‘허위’(false)와 ‘악의적 의도’(intent to harm) 즉 악의가 동시에 들어있는 정보를 말한다[13].

전통적인 객관주의 저널리즘 연구에서는 사실보도는 피인용자의 발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용보도 하는지에 치중했다. 발언 내용의 사실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14]. 기자들은 이해가 상충하는 이슈의 경우 상반되는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통해 중립과 균형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것이 ‘최선의 진실’에 이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10][15][16].

그러나 객관보도의 관행이 확산되면서 기자들은 사실검증이 가능한 취재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7].

이러다보니 사실검증이 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 언론을 통해 사실처럼 유포되기도 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세력 때문에 언론의 신뢰가 추락하고 확증편향과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 폐해를 낳기도 했다[18-22].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응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팩트체크 저널리즘이다. 1990년대 초 미국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뉴스 정보의 사실여부를 검증해 공표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인터넷과 모바일 확산으로 팩트체크 뉴스도 급속히 증가했다[23][24].

가짜뉴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유포된 각종 허위조작정보다.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이슬람 테러조직 IS를 후원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유포되면서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24].

가짜뉴스의 해악이 문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시작된 것이 팩트체크 뉴스다. 최근 팩트체크 뉴스가 부상하게 된 계기는 언론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치적 정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16]. 그레이브스는 검증 없는 인용과 같은 객관보도의 행태에 대해 “객관주의 이름으로 정당화한 가짜 관행”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언론들이 객관성, 중립성이란 보호막 뒤에 숨어 정치인 등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만 해온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10][16].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이러한 객관주의 저널리즘 관행에 대한 반발과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유력 정치인 등의 발언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관행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 시작되었다[25]. 객관주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언론보도의 신뢰성이 강조되면서 팩트체크 뉴스가 언론에 도입되었다[2].

팩트체크 뉴스는 특히 언론이 선거토론 등에서 나온 후보자 주장의 진위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역할을 한다.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보나 정치적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여부를 가리고 판정하는 팩트체크는 단순히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정해 이를 수용자에게 알리는 언론의 적극적인 실천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26].

팩트체크 뉴스는 정치가와 선출직 공직자, 여론 주도층 인사 등이 언급한 논쟁적 발언이나 인터넷에 떠다니는 소문에 대해, 믿을만한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사실과 거짓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27]. 그러나 팩트체크 뉴스의 대상이 되는 논쟁적 발언은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검증 결과에서도 ‘사실’ 혹은 ‘거짓’으로만 단정짓기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많은 게 특징이다[7].

팩트체크 기사는 또한 일반 해설 기사에 비해 배경정보 제시나 상충되는 입장의 반영, 기자의 평가가 두드러지고, 역피라미드 서술방식 대신 귀납적 서술방식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다보니 기사의 길이가 더 긴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3]. 팩트체크 기사는 도입 초기에는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발언을 팩트체크 대상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 과학, IT, 사회, 문화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루머나 화제성 이슈까지 대상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8].

국내의 경우 팩트체크 방송뉴스는 2014년 9월 JTBC가 메인뉴스 중에 <팩트체크>라는 코너 이름으로 가장 먼

저 시작했다. 이후 SBS가 2016년 12월에 <사실은>, TV조선이 2017년 12월에 <따져보니>, MBC가 2018년 1월 말 <새로 고침>을 거쳐 현재는 <알고 보니>, MBN이 2018년 2월부터 <사실 확인>이란 이름으로 방송하고 있다. KBS의 경우 2016년 11월부터 <팩트체크>를 온라인 기사로 송출했고, 방송은 <팩트체크k>로 2019년 3월부터 편성하고 있다[28].

2. 팩트체크 뉴스 선행 연구

한국에서 팩트체크 뉴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전후이다. 팩트체크에 대한 연구는 주로 팩트체크의 개념과 특징,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가짜뉴스의 인식과 팩트체크효과[29], 팩트체크 뉴스의 미디어이용자 설득효과[6], 가짜뉴스의 심각성 인식 정도와 팩트체크 뉴스 열독상관성[2] 등이 팩트체크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연구다.

이들 연구에서는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가 뉴스 소비자의 처리동기, 팩트체크의 품질, 보도 주체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17][29][30],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하는 효과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다[23][31][32]. 염정훈과 정세훈은 실험을 통해 가짜 뉴스가 뉴스 소비자가 지닌 신념에 얼마나 일치하는가, 주장의 강약, 그리고 정보원에 대한 호감 등이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29]. 정성욱은 뉴스 정보원의 신뢰 여부와 팩트체크 뉴스 소비자 의견 일치 여부가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결과 팩트체크 뉴스의 효과는 뉴스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않는 정보원의 팩트체크 뉴스를 접할 때나 팩트체크의 결론이 본인들이 지닌 의견과 불일치할 때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23]. 김선호와 백영민은 실험연구를 통해 언론의 팩트체크 뉴스가 가짜 뉴스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6]. 2017 대선관련 팩트체크 뉴스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팩트체크 뉴스에서 심각한 정치 편향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10]. 이와 달리 이나연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시기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가 국제 팩트체크 준칙가운데 투명성과 불편부당성을 얼마나 준수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선택편향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25]. 국내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언론인들은 팩트체크 대상을 선정할

때도 개인이나 소속사의 편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정한바 있다[3][8]. 팩트체크 뉴스는 일반뉴스와는 달리 정치인의 발언이나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같이 객관적인 판정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 따라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때로는 역효과까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3].

미국 선행 연구에서도 마리에타 등은 팩트체크에서 선택편향(selection bias)이 있을 수 있으며 판정결과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9][33].

한국의 팩트체크 언론인들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도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는 기자들은 팩트체크가 다루는 사실이 기존의 발표기사나 발생기사가 다루는 사실과는 다른 층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역피라미드형 서술방식 대신 맥락을 제시하는 기승전결의 서술방식을 지향하고 있어 기존의 보도와는 차별성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34].

3. 팩트체크 뉴스의 공정성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체계적인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35]. 공정성을 불편부당성으로 이해한다면 대척점에 있는 편향성 측정을 통해 공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뉴스보도의 정치적 편향 여부를 가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달레시오와 엘린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메타분석을 통해, 선택 편향성(gatekeeping bias), 보도 편향성(coverage bias), 서술 편향성(statement bias)으로 분류하였다[35]. 같은 맥락에서 시퍼(Schiffer)는 뉴스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측정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뉴스보도의 물리적인 양이 어느 한 정당에 편중되었는지, 뉴스보도의 논조가 어느 한 정당에 편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뉴스보도가 갖는 정치적 편향성은 물리적 편향성, 주제의 편향성, 논조의 편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팩트체크에서 방송사가 검증 대상을 선택할 때 어떤 주제와 이슈를 선택하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팩트체크 뉴스 성격 자체가 '진실이 아닌 뜻깊은 소재'를 대상으로 삼아 진실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3][10][18][28]. 팩트체크 대상이 되는 검증대상의 선택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제를 다루는 정도에 따라 선택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8][35]. 방송사가 팩트체크의 대상으로 특정 정파에 불리한 소재나 이슈를 주로 선택해 사실이 아님을 밝혀낸다면 '검증대상에 대한 선택편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도 논조의 편향성은 서술편향성(statement bias)을 의미하는데, 뉴스관점이나 논조가 특정 정파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도를 말한다. 방송사나 기자의 이념적 지형이나 성향에 따라 특정정파에 우호적이나 비판적인 시각이 팩트체크 뉴스 서술에 투영된다면 논조의 편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8][35]. 특히 선거 보도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다면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37]. 따라서 팩트체크 뉴스를 제작하는 기자의 서술태도가 특정 정파에 우호적인지 비판적인지 내용 분석을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방송 뉴스보도가 갖는 정치적 편향성은 물리적 편향성, 주제의 편향성, 논조의 편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뉴스보도의 정치적 편향성 측정 기준을 물리적 편향성, 보도논조의 편향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4. 연구문제

팩트체크 뉴스의 편향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신문을 중심으로 검증 대상이나 주제, 검증 방식, 판정의 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에 치중해 팩트체크 뉴스 서술상의 논조의 편향 등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성과 직결되는 분석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신문 또는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가 일부 편향됐다는 단편적인 결론을 내릴 뿐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설득력 있는 분석이 부족해 방송사별 팩트체크 뉴스의 특성을 추출에는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사별 팩트체크 뉴스의 특성과 공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검증대상이나 주제는 물론 서술에 나타난 편향여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팩트체크 뉴스의 편향성 분석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사가 어떤 주제와 이슈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하는가에 따라 팩트체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40]. 소속사의 이념적 지향이나 이해에 따라 특정 정파에 불리한 소재를 주로 골라서 팩트체크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팩트체크 뉴스는 선거기간 중 방송사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후보를 많이 선택해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성향이 비슷한 우호적인 후보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이 많아도 검증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 [8][41]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보수 후보가 진보 후보보다 팩트체크 대상에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0][38]. 보수 후보가 논란이 된 발언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반박도 있지만 편향된 팩트 체크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전파되는 만큼 영향력이 강하고 전파력이 빠른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는 소셜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9]. 하지만 방송사에 따라 팩트체크 대상이 다르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서술논조가 달라진다면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방송사의 정치적 지향이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 분석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 검증대상과 주제는 언론사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한국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 검증 결과의 제시는 언론사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한국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 서술논조는 방송사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내용분석을 통해 팩트체크 뉴스의 공정성을 비교 검증하고 검증 대상과 검증 방법의 편향 여부를 분석했다.

1. 자료의 수집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가 편향성을 띠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팩트체크 뉴스가 많아지기 시작한 2022년 1월부터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된 후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6월1일 전날인 5월

31일 까지 5개월간 방송사 팩트체크 뉴스를 전부 수집해 분석했다.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메인뉴스의 한 코너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선 후보 등 정치인의 발언이나 주장에 나타난 사실 검증에 집중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인 발언 검증 뿐 만이 아니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정치적 쟁점이나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검증등 대상이 다양화됐다[28].

자료 수집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전이 치러진 2022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지상파 방송 KBS와 MBC SBS와 종합 편성 채널인 JTBC와 TV조선, MBN, 뉴스전문채널 YTN 뉴스를 대상으로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팩트체크 코너로 운영된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검증 대상으로 방송을 선택한 이유는 방송뉴스는 인쇄매체에 비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고 SNS등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39]. 더구나 신문이 간헐적이고 부정기적으로 팩트체크 뉴스 코너를 운영하는데 비해 방송은 비교적 메인뉴스 고정코너로 꾸준히 팩트체크 뉴스를 편성해 왔고 정치적 이슈 외에도 다양한 사회, 경제, 환경 이슈를 제기해 온 점도 고려했다.

분석대상이 된 팩트체크 뉴스는 KBS의 <팩트체크>, MBC의 <알고보니>, SBS의 <사실은>, JTBC의 <팩트 체크>, TV조선 <따져보니>, MBN <사실확인>, YTN의 <팩트와이> 이다. 채널 A도 <팩트맨>이 운영되고 있으나 조사대상 기간 2건에 불과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는 JTBC가 2014년 9월 <팩트체크>로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후 SBS가 2016년 12월에 <사실은>, TV조선이 2017년 12월에 <따져보니>, MBC가 2018년 1월에 <새로고침>으로 시작했다가 이후 <알고보니>로 변경했고, MBN은 2018년 2월부터 <사실확인>을 방송하고 있다. KBS는 2016년 11월부터 온라인 기사로 <팩트체크>를 운영하다 2019년 3월부터, 팩트체크K 코너를 메인뉴스에 방송하고 있다. YTN은 <팩트와이>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사 팩트체크 뉴스의 수집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고 한국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교차 확인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가 36개 언론사(제휴해지 포함)와 제휴해 운영하는 SNU 팩트체

크를 참조해 자료를 수집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방송 팩트체크 뉴스는 모두 227건으로 KBS가 23건, MBC가 28건, SBS가 40건, JTBC 39건, TV조선 64건, YTN 20건, MBN 13건이다.

표1. 방송사별 팩트체크 건수(2022.1.1.~5.31)
Table1. Number of fact-checks by broadcaster

	KBS	MBC	SBS	JTBC	TV 조선	ytn	MBN	계
건수	23	28	40	39	64	20	13	227

2. 분석 유목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유목으로는 우선 이슈나 주제의 쟁점이 된 발언이나 발화자 등 출처유형을 분류했다. 이어서 주제와 검증방식, 판정 결과 등을 분석했다. 검증 근거로는 출처와 통계, 규정, 자료, 전문가, 해외사례 등으로 분류했다.

표 2. 방송 팩트체크 뉴스 분석 유목
Table 2. Broadcast fact-checking News analysis Nomadic

분석 유목	항목	세부항목
대상	출처 유형	1. 정부 & 정치인, 관료 발언 내용 확인 2.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 퍼진 정보, 3.신설 시행 법, 규정 내용이 궁금한 경우 출처는 알 수 없으나 논란이 된 경우, 직접 문제제기
	주제	1.정치 2. 경제 3. 사회 4. 보건 5. 문화 6.국제 7. 환경 8.기타
방법	검증 방식	1.출처검증 2.통계 검증 3.규정검증 4.자료 검증 5. 전문가 검증 6.해외사례 및 서술
결과	결과 의 제시	1.전혀 사실 아님 2.대체로 사실 아님 3.절반의 사실 4. 대체로 사실 5.사실 6.판단유보 7.맥락설명
	유 불 리	1.민주당(진보)에 불리 2.국민의 힘(보수) 불리 3. 중립

*김수정(2018), 김수정·정연구(2021), 김여라(2020), 박기복(2018)수정 보강

IV. 연구결과

1. 방송뉴스 팩트체크 현황

분석기간인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수집된 방송 팩트체크 뉴스는 모두 227건으로 집계됐다. 방송사 별로는 KBS가 23건, MBC가 28건, SBS가 40건, JTBC 39건, TV조선 64건, YTN 20건, MBN 13건이다. 이 기간 중

에는 20대 대통령 선거(2022.3.9.)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기간이었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전이 치열한 시기여서 선거 관련 이슈가 팩트체크 뉴스로 주로 다뤄졌고 코로나 관련 이슈, 경제난 이슈들이 다뤄졌다.

방송사 중에는 TV조선이 64건으로 제일 많았고 SBS(40건), JTBC(39)의 순으로 많았다. 공영방송인 KBS(23), MBC(28)는 민영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팩트체크 뉴스가 적었다.(표1)

방송 팩트체크 뉴스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검증대상의 출처유형, 주제별로는 어떤 분야를 다뤘는지, 검증근거는 어떤 것을 동원했는지, 판정결과는 어떻게 제시됐는지, 검증결과는 보수 또는 진보진영에 유리했는지 등을 전수조사했다.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에서 무엇을 검증대상으로 선택했는지 분석한 결과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의 발언을 검증하는 것이 44%(100건)으로 제일 많았다(표3). 분석 대상 기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는 대중들이 궁금해 하거나 맥락설명을 위해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43%(9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셜미디어 상의 루머나 허위정보, 화제 이슈를 검증한 것이 13%(30건)을 차지했다(표3).

표 3. 방송사 팩트체크 현황
Table 3. Broadcasters Fact Check Status

대상	발언100 (44%) 인터넷30 (13%) 자체제기 97 (43%)
주제	정치79 (35%) 경제35(15%) 사회70(31%) 보건32(14%) 문화2(1%) 국제7(3%) 과학1(0.4%) 환경1(0.4%)
검증 근거	출처54(23.7%) 통계29(12.7%)규정40(17.6%) 자료46(20.2%) 전문가41(18.0%) 해외11(4.8%) 서술6(2.6%)
결과 판정	전혀 사실 아님38 (16.7%) 대체로 사실 아님 43(18.9%) 절반의 사실 28(12.3%) 대체로 사실 28(12.3%) 사실 9(3.9%) 판단유보19(8.3%) 맥락설명 62(27.3%)
비고	진보 불리 42(18.5%) 보수 불리 55(24.2%) 중립 130 (57.2%)

주제별로는 정치가 35%(79건)로 제일 많았고, 사회 31%(70건), 경제 15%(35건),보건 14%(32건), 국제 3%(7건), 문화 1%(2건), 환경(1건), 과학(1건)의 순이었다(표3).

코로나 관련은 보건으로 따로 분류했고 검수완박법 쟁점은 사회로 분류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둘러싼 여야대립, 경제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방송사 팩트체크 뉴스의 결과 제시는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기보다는 맥락을 설명한 것이 27.3%(62건)로 제일 많았고 대체로 사실 아님 18.9%(43건), 전혀 사실 아님 16.7%(38건), 절반의 사실 12.3%(28건), 대체로 사실 12.3%(28건), 판단유보 8.3%(19건), 사실 3.9%(9건)의 순이었다(표3).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이 전체의 35.6%에 달해 대체로 사실이나 사실로 판정(16.3%)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검증결과는 무엇을 검증대상으로 선택했는지 또는 질문의 방향에 따라 방송사별로 편차가 심했다. 검증결과를 제시할 때 방송사별 지향점에 따라 해석을 가미한 가치 판단이 많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풀이된다.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 검증 결과 결과적으로 보수 또는 진보에 불리한 지를 분석한 결과 중립적인 경우가 57.2%(130건)로 제일 많았다. 의견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방송사의 편집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로는 진보보다는 보수에 불리한 결과제시가 24.4%(55건)로 진보에 불리한 결과제시 18.5%(42건) 보다 많았다.

2. 방송사별 팩트체크 뉴스의 대상과 주제

분석기간 KBS는 모두 23건의 팩트체크 뉴스를 방영했다. 대선 후보 발언 또는 공약검증 13건, 인터넷 또는 소문 검증 5건, 정책 변경에 따른 궁금증 등 자체 문제제기 5건으로 비교적 정치인 관련 발언이나 공약검증 또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검증에 치중했다. 주제별로는 정치가 3건, 경제가 8건, 사회2건, 코로나 관련 8건, 문화 1국제 1건으로 대선 후보 발언과 공약 중 경제관련 검증과 코로나 관련 검증기사가 많았다.

MBC는 분석 기간 모두 28건의 팩트체크 뉴스를 다뤘다. 정치인등의 발언을 검증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13건, 방송사 자체적으로 제기한 것이 11건,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등을 다룬 것이 4건의 순이었다, 주제별로는 사회가 16건으로 제일 많았고 정치9, 경제 3건의 순이었다.

팩트체크 대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공약검증 차원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과 병사월급 200만원 공약 차이, 성평등 정책 차이, 병역개편 공약, 저출생 대책, 복핵 문제 해결책 등 여야후보 후보 공약을 같이 묶어 팩트체크한 경우가 많았다. 20대 대선이 끝난 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소재가 팩트체크 대상으로 많이 다뤄졌다. 정부

조직 개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최대 12조원 이득?, 아이폰 잠금 정말 못 푸나?, 역대 최대 사외이사, 내각으로 직행?, 여가부 폐지 압도적? 여론조사 따져보니, '표절률' 낮으면 표절 아니다?(한동훈 장관 후보자 장녀 논문 검증)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선택편향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SBS는 모두 40건의 팩트체크 뉴스를 보도했다. 검증대상으로는 정치인등의 발언이 23건으로 제일 많았고 궁금증이나 자체적으로 제기한 것 15건, 인터넷 등 소문 검증이 2건의 순이었다. 주제별로는 정치가 21건으로 제일 많고 사회가 11건, 국제 3건,경제 2건, 보건, 환경, 문화 각각 1건의 순이었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는 같은 기간 39건의 팩트체크 뉴스를 방영해 TV조선 다음으로 많았다. 정치인 등의 발언을 검증한 것이 23건으로 제일 많았고 인터넷이나 소문 검증 9건, 궁금증이나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7건의 순이었다. 주제별로는 정치가 18건으로 제일 많고 사회13건, 경제와 보건이 각각 4건의 순이었다.

TV조선은 분석기간 중 모두 64건의 팩트체크 뉴스를 방영해 방송사중 가장 많은 수의 팩트체크 뉴스를 내보냈다. 검증대상으로는 다른 방송사와 달리 정치인등의 발언을 검증한 것은 10건에 그쳤고 궁금증(14건)이나 자체 제기한 것(39건)이 많아 방송사 스스로 선정한 검증대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제별로는 정치 경제 사회 보건 등을 골고루 다룬 것이 특징이다. 정치가 19건, 경제와 사회가 각각 15건, 보건 13건, 국제2건의 순이었다.

YTN이 다룬 팩트체크 뉴스는 모두 20건으로 이중 17건이 정치인의 발언을 검증한 것이었다, 인터넷이나 소문을 다룬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주제별로는 정치가 6건으로 제일 많았고 사회6건, 보건4건, 경제2건,과학과 국제가 각각 1건의 순이었다.

MBN은 모두 13건의 팩트체크 뉴스를 내보냈다. 타사와 달리 정치인 등의 발언을 검증한 것은 1건에 불과했고 인터넷 등에 떠도는 소문(6건)이나 자체 제기한 것(6건)이 대부분이었다. 주제별로는 사회가 7건으로 제일 많았고 정치(3건), 보건(2건),경제(1건)의 순이었다.

3. 방송사별 팩트체크 뉴스 검증 결과

팩트체크 뉴스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결과의 제시에서 '대체로 사실 아님'(18.9%)이나 '전혀 사실 아

님'(16.7%)이 많았다. 하지만 방송사에 따라 검증대상에 대한 질의의 방향에 따라 또는 맥락 설명에만 그친 경우도 많아 결과의 제시에서 큰 편차를 보였다.

KBS의 경우 전체 23건 중 결과의 제시에서 '전혀 사실 아님' 34.7%(8건)과 '대체로 사실 아님'21.7%(5건)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이밖에 절반의 사실(4건), 판단 유보(3건) 맥락설명(2건), 대체로 사실(1건)의 순이었다.

MBC는 결과의 제시에서 전체 28건 중 맥락설명에만 그친 경우가 42.8%(12건)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사실 아님'17.8%(5건), '전혀 사실 아님'14.2%(4건),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사실'이 각각 10.7%(3건)의 순이었다. 맥락 설명 중에는 실체는 옳고 그림을 판단하기 어려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SBS는 팩트체크 뉴스 건수(40건)가 많은 대신 결과의 제시에서 맥락설명이 25%(10건)로 제일 많았고 결정을 유보한 것도 17.5%(7건)나 됐다. 명시적으로 판정결과를 내린 것은 전체의 절반 가량에 불과해 '전혀 사실 아님'20%(8건), '절반의 사실'17.5%(7건), '대체로 사실 아님'15%(6건), '대체로 사실'2.5%(1건), '사실'2.5%(1건)의 순이었다.

JTBC는 전체 39건 가운데 '대체로 사실 아님'33.3%(13건), '전혀 사실 아님'25.6%(10건)이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절반의 사실'(4건), '대체로 사실'(3건), '사실'2건이었다. 판단을 유보(4건)하거나 맥락설명(3건)에 그친 경우도 모두 10건으로 25%에 달했다.

TV조선은 팩트체크 결과의 제시에서 전체 64건 가운데 맥락설명에 그친 경우가 전체 60%인 39건에 달해 해설기사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다. 결과의 제시에서 '전혀 사실 아님'은 한건도 없고 '대체로 사실 아님'(4건)이나 '절반의 사실'(6건)이 모두 10건에 불과한 반면 '대체로 사실'(10건)과 '사실'(2건)이 더 많아 대조를 보였다. 판단 유보는 3건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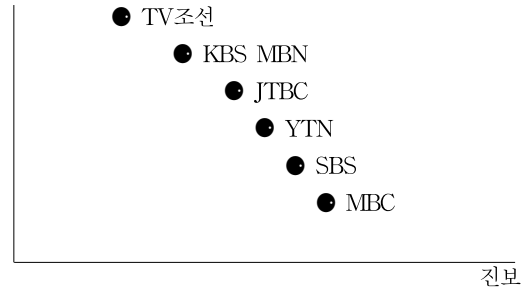
YTN은 주로 정치인 발언을 검증한 팩트체크 검증에서 '전혀 사실 아님'35%(7건)과 '대체로 사실 아님'25%(5건)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어서 '대체로 사실'20%(4건), 판단유보 10%(2건) '절반의 사실'5%(1건) 순이었다.

MBN은 전체 13건 중 결과의 제시에서 '전혀 사실 아님'(1건), '대체로 사실 아님'(5건)이 46%로 '절반의 사실'(5건), '대체로 사실'(4건)과 비슷했다.

4. 방송사별 팩트체크 보수진보 유불리

방송사별로 팩트체크 뉴스 검증 결과의 제시가 결과적으로 진보 또는 보수 정파에 유리한지 분석하는 것은 방송사별로 검증대상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났다.

표 4. 방송사별 팩트체크 지형
Table 4. Fact-checking-oriented 보수



KBS의 경우는 전체 23건 중 검증결과에서 중립적인 경우가 15건으로 65%로 제일 많았다. 진보에 불리하거나 보수에 불리한 경우는 각각 17%(4건)로 외견상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특성상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 양비론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MBC는 KBS에 비해 대선전에는 여야 후보를 같이 다루며 양비론적 시각으로 접근했으나 대선이 끝난 후에는 새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의 대상으로 청와대 이전의 경제적 효과 12조원? 아이폰 잠금 왜 못푸나? (한동훈 장녀)표절률 낮으면 표절 아니다? 등 대상과 서술방식에서도 진보에 우호적인 서술이 많은 탓에 판정결과 제시에서 보수에 불리한 판정이 압도적으로 많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MBC는 전체 28건 중 진보에 불리한 결과제사는 한 건도 없었고 보수에 불리한 판정이 9건으로 전체의 32%에 달했다. 판정을 유보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 68%(19건)를 제외하면 보수에 불리한 검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MBC가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더 비중있게 다루면서 검증 대상의 선택에서 보수진영에 불리한 소재를 집중적으로 선택한 선택편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전체 64건 가운데 맥락설명에 그친 38건을 제외하고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 불리한 판정결과가 25건으로 전체의 39%에 달해 진보에 불리한 1건(1.5%)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MBC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TV조선은 검증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의원 불체포 논란, 김혜경 법카논란 등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 불리한 소재를 많이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BS는 전체 40건중 중립적인 31건을 제외하고 보수에 불리한 결과가 17.5%(7건)로 진보에 불리한 판정 5%(2건)보다 많아 진보에 유리한 판정결과가 많았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도 전체 39건중 중립적인 판정 48.7%(19건)을 제외하고 진보에 불리 17.9%(7건)보다는 보수에 불리한 결과가 33%(13건)로 거의 두 배 가량 많아 진보에 유리한 팩트체크 뉴스가 많았다. YTN도 전체 20건중 보수에 불리한 판정이 55%(11건)로 진보에 불리한 20%(4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친 진보성향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MBN은 전체 13건 모두 보수 진보 어느 쪽에도 유불 리가 없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 YTN과는 대조를 보였다.

5. 방송사별 팩트체크 뉴스 서술 논조 분석

KBS는 의견상 비교적 중립을 지키려는 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한창 논란이 됐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강행과 관련된 팩트체크 뉴스는 한건도 없는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소재일지라도 자료나 해외사례, 전문가 취재를 통한 맥락이나 쟁점 설명이 필요한 주제인데도 여론지형 등을 고려해 팩트체크 뉴스 코너로 따로 다루지 않은 것은 팩트체크 대상 선정에 편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BS는 대선 후보 발언과 공약을 검증할 때도 개별 후보별로 따로 다루어 비교적 진위나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쉽게 보도한 점은 장점이다. 대선 후보 발언 검증 기사에서도 여야 후보를 골고루 균형있게 다루고 있으나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조금 더 비중있게 다뤘다. 예를 들어 “성인지 예산’ 줄여 대공 방어망 구축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검증하면서 “성인지 예산은 단순한 분류기준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발언의 취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또 이재명 후보가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TV 토론의 발언을 대상으로 한 팩트체크에서도 전경련 보고서에 나온 ‘IMF 특별 인출권’을 기축통화로 혼동해 말한 것 같다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발언실수인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서술 편향이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KBS는 팩트체크 K에서 정치인 또는 공직자 발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뉴스 외에도 뉴스의 전후 맥락을 설명하거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친절하게 풀어서 따져보는 궁금중 해소 차원의 팩트체크 뉴스도 비교적 많았다. KBS는 이슈의 사실여부를 검증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사실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원론적인 설명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MBC <알고보니>는 대체로 논란이 된 이슈를 중심으로 전후 맥락과 사실여부,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내용이 많았다. 대선 기간에는 9건의 [대선 알고보니] 코너를 포함해 11건의 팩트체크 뉴스를 통해 야야 대선 후보의 발언의 진위나 공약을 검증하고 있다. MBC는 여야 대선 후보 발언의 사실 여부를 개별적으로 명확히 판정하기보다는 여야 후보를 양비론적으로 비교해 나열하거나 발언의 취지나 해명을 덧붙여 맥락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계적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야 후보 발언 또는 공약을 분야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한 특정 후보의 발언이 두루뭉술하게 희석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선과 관련한 팩트체크에서는 분야별로 묶어 대선 후보 공약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있지만 “한국이 곧 기축 통화국이 된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 후보의 다른 발언을 먼저 검증한 뒤에 배치하는 등 문단의 위치 변경이나 취지 설명으로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기술적으로 피해가는 편파적 서술이 특징이다. 2022년 2월28일 뉴스데스크 [대선 알고보니]보도에서는 “성인지예산 때서 북핵 막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성인지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아나?”고 반문하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을 집중 부각하며 성인지 예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뭐가 논란인지를 팩트체크하고 있다. MBC는 성인지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아니며 여성가족부가 성인지 예산을 35조원이나 쓴다는 가짜뉴스로 여가부 폐지론을 정당화 한 것처럼 남녀를 갈라치기한다는 비판하고 있다.

MBC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후에는 검찰 수사권 박탈 강행,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부처 개편, 내각 후보자들의 문제점, 여가부 폐지, 한동훈 딸 논문표절여부 등 정부를 겨냥한 비판적 소재를 검증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눈에 띈 점은 정치이슈를 벗어나 한국 갈등 세계 1위 주장의 근거를 검증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서 희생된 가난한 모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사람을 향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 검증 등 가난과 폭력 문제에 검증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공영방송으로 팩트체크의 대상으로 삼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아이폰 잠금 정말 못 푸냐’와 ‘표절을 낮으면 표절 아니다’에서 다른 한동훈 딸 논문 표절문제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선택편향이 두드러졌다. 표절을 4%라는 한 장관의 발언을 검증하면서 어디가 표절인지 지적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표절을 피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기술해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다. MBC가 정권 교체 후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집요한 공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 통과 강행은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숭한 논쟁점을 남긴 이슈였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인지, 검찰수사권이 헌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법 강행통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이 팩트체크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MBC는 4월12일 단 한차례 ‘외국 검찰은 수사권 있다? vs 없다?’ 팩트체크 뉴스로 다루고 있다. 그것도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여야가 다른 나라 검찰사례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만 서술하고 있어 두루뭉술하게 여야공방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보수적 성향이 강한 TV조선은 검수완박법 강행과 관련해 10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논쟁점과 문제점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과 맥락설명을 시도한 것과 대조된다.

MBC는 대선 후보 공약 검증에서는 여야 후보의 발언과 공약을 같이 다루면서 외형적 균형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뉴스의 경우 당시 여당 후보의 발언실수를 상대후보의 논란소지 있는 발언과 등치시켜 교묘하게 피해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MBC가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다는 국민의 힘 주장을 검증한 <여가부 폐지 압도적? 여론조사 따져보니...>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측이 여가부 폐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건 바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는 것인데 여론조사 결과는 질문에 따라 결과가 들쭉날쭉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여가부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주장

을 하려면 어디를 여가부 폐지로 볼 것인지 개념을 분명히 하고, 주장의 근거를 가져다 써야 할 것’이라며 ‘분명한 의견을 제대로 담지 못한 단순화된 여론조사는 실제 여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MBC는 분석대상 기간중 전체 28건의 팩트체크 뉴스 가운데 전체의 42%인 12건을 맥락설명에 치중하는 해설성 기사를 방송해 사실검증 시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팩트체크 뉴스 검증 결과나 해설이 진보 또는 보수 진영 중 어디에 유불리한 지 분석한 결과 보수 정파에 불리한 판정이 전체 28건중 9건에 달하고 진보에 불리한 판정은 없었다. 양비론적 기술로 외형상 중립을 유지한 판정은 19건으로 분석됐다.

SBS는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여야 후보 발언을 개별 발언별로 하나하나 사실여부를 검증하기보다는 여야 후보의 발언을 같이 묶어서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검증결과의 제시에서 모호한 점이 많은 게 특징이다. SBS <사실은> 하나의 보도에 여러 후보의 말이 ‘이런 측면은 사실에 가까우나 다른 측면에서는 반론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판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검증을 목표로 하는 팩트체크 뉴스라기보다는 해설기사에 가까워 팩트체크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SBS는 대선 후보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검증하기보다는 여러 후보의 주장을 하나로 묶어 다양한 층위에서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에 치중해 판정결과가 명확치 않은 것도 많았다. 일부 코너는 명시적으로 판정근거를 밝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판정결과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서 다소 모호한 팩트체크가 많았다. 팩트체크에서 발언의 사실여부를 판정하기보다는 주장의 근거와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분석된다. SBS는 문재인 정부시절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법 통과와 관련해 ‘누가 선진화법을 위반했나’를 검증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원문을 통해 문구 그대로 엄정히 살펴보면, 위반의 주체를 논하기 어렵다’며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편파논란을 피하려는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SBS는 그러면서 ‘‘묘안’과 ‘꼼수’ 사이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왜곡돼 이용될 소지가 있어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들의 절차정의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만 보도해 절차정의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의 <따져보니>는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 적게는 일주일에 2건에서 많게는 5건을 다뤄 5개월간 모두 64건으로 가장 많은 빈도로 팩트체크 뉴스를 고정편성하고 있다. TV 조선은 팩트체크 뉴스에서 해설성 기사가 많아 사실의 진위여부를 따져서 판정결과를 제시하기보다는 진후 맥락을 설명하는 뉴스가 많았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진보진영에 불리한 뉴스건수가 많아 결과적으로 보수진영에 우호적인 편향성이 드러났다.

TV조선은 팩트체크 뉴스를 통해 사실의 진위를 검증하기도 하지만 그날의 주요 뉴스로 다룬 이슈의 진후 맥락 설명을 통해 쟁점 사안의 배경과 쟁점,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해설기사가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1월에는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반영해 코로나 관련 팩트체크 뉴스를만 13건을 집중 편성했다.

선거관련 팩트체크 뉴스도 많아 22년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대선 후보자나 여야 정치인의 발언 또는 공약을 검증하는 뉴스에 집중하고 있다. 대선을 전후해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선 후보와 관련된 팩트체크 뉴스는 모두 12건으로 대선 후보의 분야별 공약을 묶어서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후보별 공약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야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가 생기기 않도록 특정 후보의 공약을 따로 따로 팩트체크해 진위를 가리려 하기 보다는 분야별 후보자들의 공약을 묶어서 장단점을 비교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TV 조선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에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 관련 인사검증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취임식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른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강행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물론 졸속입법의 문제점과 실현가능성 등을 집요하고도 집중적으로 의제 설정해 검수완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선거 국면에서 대선후보 발언이나 공약검증에서는 여야의 비중을 맞추며 균형있게 다루고 있으나 '검수완박법' 강행과 관련해서는 다룬 빈도나 내용면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진보 정파에 불리한 측면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실질적으로는 보수 정파에 유리한 편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TV조선은 특히 금리인상과 자산시장 폭락 등 경제 이슈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것이 주목할 만하다. 경제 이슈는 방송뉴스로서는 소구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위기와 관련된 이슈를 꾸

준히 제기하고 진후 맥락과 배경, 전망을 따져보며 보다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은 돋보였다.

종합편성 채널 JTBC는 팩트체크 건수는 39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양비론적 시각으로 다룬 것이 많았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 나온 후보 발언을 팩트체크 하면서 여야 두 후보 또는 여야 네 후보 발언을 이슈별로 모두 소개하면서 한꺼번에 양비론적 시각으로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YTN은 주로 정치인 등의 발언 진위여부를 검증하면서 보수 정파에 불리한 서술이 많았다. 육설과일 방송위법여부, 문재인 지지율 40% 못넘어?, 노조전임 임금 627억, 여가부 폐지찬성 98%, 한국 불평등 최고 등 정치인 등의 발언 진위여부를 검증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수에 불리한 결과가 진보에 유리한 검증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MBN은 검증 결과에서 대체로 명확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V. 결론 및 논의

객관보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출발한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대 대선과 지방선거전이 치러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지상파 방송인 KBS와 MBC SBS와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과 JTBC MBN, 뉴스전문 채널인 YTN의 메인뉴스에 방영된 팩트체크 뉴스 227건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발언을 검증한 것이 전체의 45%(102건)으로 제일 많았다. 주제별로는 정치분야 34%(78건)가 제일 많긴 했지만 사회(31%) 경제(15%) 분야도 비교적 많았다.

검증결과에서도 팩트체크가 주로 사실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상을 선택해 검증하는 것인 만큼 '전혀 사실이 아니다'(16%)거나,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19%)라고 판정한 것이 전체의 35%로 제일 많았다. 하지만 방송사에 따라 팩트체크 검증대상에 차이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TV조선의 경우에는 검증 결과에서 대체로 사실 또는 사실로 검증한 것이 30%에 달해 MBC(21.4%)와 대조를 보였다. MBC가 팩트체크 대상선택과 서술에서 보수 정파에 불리한 것이 많은 반면에 TV조선은 보수정파에 유리한 서술이 많았다. JTBC의 경우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 나온 후보 발언을 이슈별로 모두 소개하면

서 한꺼번에 양비론적 시각으로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는 방송사 팩트체크의 판정결과를 보면 대체로 보수 정파에 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MBC와 JTBC YTN이 진보진영에 우호적인 서술이 많았던 반면 KBS와 MBN은 중립적인 서술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인 KBS가 팩트체크 결과의 판정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에 치우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팩트체크 뉴스에서는 의견상 비교적 중립을 지키려는 한 흔적이 역력했다. 특히 논쟁적 이슈였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슈를 한번도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MBC의 경우 전체 28건중 진보에 불리한 판정이 한건도 없었던 것에 반해 보수에 불리한 판정만 32%(9건)에 달했다.

방송사중에는 공중파 방송 가운데는 SBS, 종합편성 채널 가운데는 TV 조선이 팩트체크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나 경제나 사회이슈를 폭넓게 다루면서 사실여부를 명확하게 가리기보다는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는 이슈를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아 맥락 설명에 치우친 것이 특징이다. 팩트체크 기사의 서술에서 방송사별로 이념적 편향성이 투영되는 것은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대상선택과 검증방식, 서술방식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사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전이 치러진 2022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KBS, MBC, SBS, JTBC, TV조선, MBN, YTN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방송사 팩트체크 뉴스의 전체적 경향과 공정성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분석대상 기간이 평소보다 팩트체크 뉴스가 많이 다뤄진 시기이긴 하지만 선거관련 이슈들이 많이 다뤄진 시기이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팩트체크 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수조사를 기초로 방송사의 팩트체크 뉴스 논조를 비교 분석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방송 팩트체크 뉴스 비교 분석은 한국 방송의 팩트 체크 뉴스가 검증 대상의 선택이나 검증 결과, 서술논조에서 편향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탐색적 연구로 방송 팩트체크의 지향성 및 공정성 여부를 가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팩트 체크 뉴스를 비교 분석해 특성을 추출하는 것은 한국의 팩트 체크 뉴스가 지향해야할 방향성을 탐색하는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팩트 체크 뉴스에

대한 선행 연구는 가짜 뉴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체크 뉴스의 긍정적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그것도 주로 신문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따라서 방송의 팩트체크 뉴스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한국 방송뉴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언론이 지향해야할 방향성을 탐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팩트체크 뉴스는 다른 뉴스에 비해 주목도가 높고 해당 방송사에 대한 뉴스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방송사마다 제공하는 팩트체크 뉴스가 팩트체크 대상이나 내용, 검증 결과의 분석, 서술방식에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방송뉴스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References

- [1] S.H.Kim, W.K.Kim“Check the Fact Check“, Media Issue, Vol 3, No 7,pp.1-9, 2017
- [2] Y.M.Baek, S.H.Kim, “An Exploratory Study of Exposure, Perceptions of Impact and Sharing Behaviors of Fact-check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61, No 6, pp.117-146, 2017.
- [3] E.R.Cho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Fact Check Journalism”,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 55, No 4, pp.5-53, 2018.
- [4] L.Graves, Deciding what’s true: The rise of political fact-checking in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 [5] L.Graves, B.Nyhan and J.Reifler, The diffusion of fact-checking:Understanding the growth of a journalistic innovation, American Press Institute, 2015.
- [6] S.H.Kim, Y.M.Baek,“The Effects of Fact-check News on Political Allegation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 Persuasion or Boomerang Effect ? ”,Joual of Communication Research. Vol 55, No 1,pp.161-194, 2018.
- [7] D.H.Ma, T.S.Oh, S,H.Kim, Researching the Korean fact-checking model for making journalism public, Korea Press Foundation Report, Vol 6, 2013
- [8] C.M.Lee, Media bias in fact-checking journalism practice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2019
- [9] M. Marietta, D. C. Barker and T. Bowser, “Fact-checking polarized politics:Does the fact-check industry provide consistent guidance on disputed realities?“,The Forum , Vol 13, No 4,

- pp.577-596, 2015.
- [10]Y.J.Choi, "An Analysis on Fact-Checking fo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News on each of Pres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Vol 49, pp.131-177, 2018.
- [11]E.S. Yoo,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societal legal interest", *Journal of Media and Law*, Vol 17, No 2, pp.39-68, 2018.
- [12]Y.M.Kim, "Third-person effect on fake news in social media : Focusing on false information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Journal of Korean Broadcasting*, Vol 35, No 1, pp.5-32, 2021.
- [13]Y.S.Hwang, "The problem with defining the concept of fake new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Vol 556, pp.6-11, 2017.
- [14]M. Schudson,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Vol 2, No 2, pp.149-170, 2001.
- [15]W.S.Hong, "Toward A Practical Understanding of Journalism Objectivity: A Case Study of 'Fact Check'", *Journal of communication Theory*, Vol 14, No 4, pp.183-226, 2018.
- [16]L.Graves, "Anatomy of a fact check: Objective practice and the contested epistemology of fact checking", *Communication, Culture & Critique*, Vol 10, No 3, pp.518-537, 2017.
- [17]L.Graves, B.Nyhan and J.Reifler, "Understanding innovations in journalistic practice: A field experiment examining motivations for fact checking",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66, No 1, pp.102-138, 2016.
- [18]S.W.Oh, A.R.Park, *Public perception of fake news*, Korea Press Foundation, 2017.
- [19]E.H.Cho, "The Effect of News Media Usage and Trust on Fake News Recognition, Discernment and Attitude to Accept", *Media Science Research*, Vol 19, No 1, pp.180-213, 2019.
- [20]S.O.Yoon, "A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Journal of Media and Law*, Vol 17, No 1, pp.51-84, 2018.
- [21]W.S.Lee, "What is Fake News? A Multidimensional Discussion of Fake News Concepts and Scopes", *Journal of Media and Personality rights*, Vol 4, No 2, p.173-214, 2018.
- [22]Y.S.Hwang, O.S.Kwon,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Regulation Measures on Fake News - Focused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Media and Law*, Vol 16, No 1, pp.53-101, 2017.
- [23]S.W.Jung, "In what situations does the 'backfire effect' or 'attitude change' of the audiences exposed to the fact check news occur? : Mechanism study based on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Korean Broadcasting Journal*, Vol 32, No4, pp.103-145, 2018.
- [24]M. A. Amazeen, E. Thorson, A. Muddiman, and L.Graves, "Correcting political and consumer misperceptions: the effectiveness and effects of rating scale versus contextual correction format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95, No 1, pp. 28-48, 2018.
- [25]N.Y.Lee, "News Organization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Based on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Media Information Research*, Vol 55, No 4, pp.99-138, 2018.
- [26]H.J.Kim, K.H.Eom, J.J.Jung, "A Study of Fact-Checking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Communication", *Social Science Discourse and Policy*, Vol 15, No 1, p.275-301, 2022.
- [27]S.W.Jung, *Research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FactCheck New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0.
- [28]S.J.Kim, Y.G.Cheong, "A Study on the Orientation of Korean Fact-Check Journalism", *Korea Press Information journal*, Vol 107, pp.7-42, 2021.
- [29]J.Y.Yum, S.H.Jeong, "Research on fake news perception and fact-checking effect : Role of prior-belief consistenc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 62, No 2, pp.41-80, 2018.
- [30]K.Garrett, E.Nisbet and E.Lynch, "Undermining the Corrective Effects of Media-Based Political Fact Checking? The Role of Contextual Cues and Naive Theory",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63, No.4, pp.617-637, 2013.
- [31]B. Nyhan, E. Porter, J. Reifler and T.Wood, "Taking Fact-Checks Literally But Not Seriously? The Effects of Journalistic Fact-Checking on Factual Beliefs and Candidate Favorability", *Political behavior*, Vol 42, pp.939-960, 2019.
- [32]C.York, J.Ponder, Z.Humphries, C.Goodall, M.Beam, C.Winters, "Effects of Fact-Checking Political isinformation on Perceptual Accuracy and Epistemic Political Efficacy",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 97, No 4, pp.958-980, 2020.
- [33]J.E.Uscinski, and R. W.Butler, "The epistemology of fact checking", *Critical Review*, Vol 25, No 2,

- pp.162-180, 2013.
- [34]E.R.Chong, “Fact Check News and the Recovery of Credibility of South Korea’s Broadcast Journalism: Focusing on the Broadcast Reporters’ Perceptions on Formatting and News Values of Fact Check News “, *Broadcasting and Cultural Studies*, Vol 31, No 1, pp.47-101, 2019.
- [35]D.D’Alessio and M.Allen, “Media bias in presidential elections: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50, No 4, pp.13-156, 2000.
- [36]A. J. Schiffer, “Assessing partisan bias in political news: The case(s) of local senate election coverage”, *Political Communication*, Vol 23, No1, pp.23-39, 2006.
- [37] H.Y.Won, S.M. Yoon, “A Content Analysis on the Fairness of the Main News of Korean General Programming TV Stations: Centered around Main News During the 18th Pre-Presidential Election Period”, *Korean Broadcasting Journal*, Vol 29, No 1, pp.117-148, 2015.
- [38]E.R.Cheong, “Fact-checking new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Kwanhoon Journal*, Vol 143, pp.19-25, 2017.
- [39]J.S.Ahn, “The impact of fact-checking segments on media trust in television news”, *Media Information Research*, Vol 56, No 4, pp.282-312, 2019.
- [40]S.J.Kim , “Content analysis study on the object, verification method, and result presentation of fact-checking broadcast news”, *Korean Broadcasting Association Conference article*, pp.295-303, 2018.
- [41]S.J.Kim, Y.G.Cheo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Bias of Korean Press : Focused on the Analysis of 19th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Korea Press Information Journal*, Vol 88, p.110-145, 2018.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48234)